

중국에 전자렌지 공장

착공

대우전자

대우전자(대표 배순훈)가 중국에 연 40만대 생산능력을 갖춘 전자렌지 공장을 짓는다.

대우전자는 중국 天津에 1,500만달러(한화 115억원)를 단독으로 투자해 年産 40만대 규모의 전자레인지 공장을 4월 착공한다고 발표했다.

대우전자는 1만평의 터에 짓는 이 공장에서 97년초부터 보급형과 고급형 등 다양한 모델의 전자렌지를 생산해 20~30%는 중국 시장에 공급하고 나머지는 다른 나라로 수출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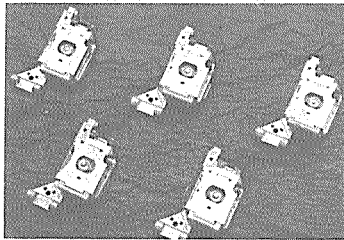
대우전자는 전자레인지 생산규모를 연차적으로 확대해 오는 2000년까지 100만대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동사의 중국 天津 복합단지에는 베트남과 폴란드·멕시코에 이은 대우전자의 4번째 해외단지로 현재 연산 100만대 규모의 카오디오공장과 150만대 규모의 청소기 공장, 연산 300만대 규모의 모터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동사는 이번에 전자렌지 공장을 건설, 天津단지를 주요가전제품과 관련핵심부품을 일괄 생산하는 종합가전단지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광디스크용 픽업 국산화

대우전자



대우전자(대표 배순훈)는 CD롬을 비롯,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DVD) 등 차세대 영상 음향기기의 핵심부품인 「광디스크용 픽업」의 자체 개발에 성공, 오는 5월부터 양산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대우전자는 약 30억원의 연구비를 투입, 3년여 만에 개발한 이 제품이 레이저 다이오드(LD)·포토다이오드(PD)·회절격자·IC 등 광학계를 일체화 하는 데 성공, 소형 경량에 대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조립 조정이 가능한 「제4세대 광픽업」이라고 설명했다.

동사는 특히 이번에 신제품의 제조기술은 물론 생산설비와 라인까지 자체개발, 원가 및 생산성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판단해 양산 돌입과 함께 세계시장 공략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대우는 朱安공장에 연산 50만개 규모의 자동차 CD용 광픽업 생산시설을 갖추고 오는 5월부터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며, 97년부

터는 CD롬 및 오디오용 광픽업의 생산에도 나서는 등 생산품목 및 규모를 해마다 늘려 오는 2000년까지 연간 3,600백만개를 생산, 세계 수요의 12%를 공급할 계획이다.

스페인 냉장고 공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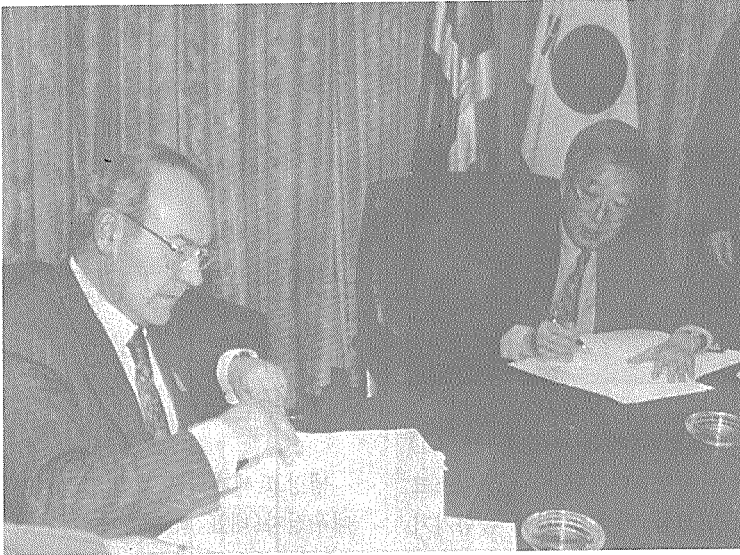
건설

대우전자

냉장고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는 대우전자(대표 배순훈)는 5년간 8,700만불을 투자해 스페인에 냉장고 공장을 건설한다.

대우전자는 스페인 북동쪽 프랑스 인접지역인 바스크州(Vasque Country) 비토리아(Vitoria)市の 대통령궁에서 배순훈회장과 이민웅전무, 바스크 대통령 호세 안토니오 아르단자(José Antonio Ardanza) 및 상공장관 디 자비에르 레테규(D. Javier Retegui) 간에 계약을 체결하고 비토리아市の 준디스(Jundis)공단내 약 3만평(100,000㎡)의 부지위에 건평 1만평(33,000㎡) 규모로 냉장고 공장을 건설키로 했다.

동사의 스페인 냉장고 공장(DEMESA : Daewoo Electronics Manufacturing Espana S. A.)은 4월 착공해 97년 9월부터 가동에 들어갈 예정인데, 300L~350L급의 유럽형 냉장고를 연간 60만대 규모로 생산해 이중 30%



는 스페인 내수시장에, 나머지 70%는 해외로 수출할 계획이다.

대우전자는 공장 가동을 위해 700여명의 현지인력을 고용할 계획이며, 내년 생산될 냉장고 제품의 본격 판매에 대비해 현지 판매 법인과 연계, 광고를 확대하는 한편 서비스 체제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초등학교 교육용 디지털 피아노 개발

대우전자

대우전자(대표 배순훈)는 일반 피아노는 물론 다양한 악기 음색을 낼 수 있으며 컴퓨터와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등 첨단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격은 일반 피아노의 1/4~1/5 수준으로

리드 오르간(풍금)보다 약간 비싼 60만원대의 초등학교 음악교육용 디지털피아노 「벨로체」(모델명 : X-100)를 개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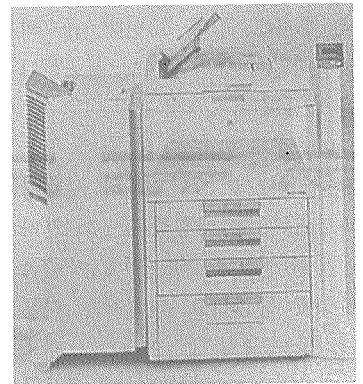
이 제품은 ▲피아노와 바이올린, 플루트, 오르간 등 7가지 악기의 음색을 재현할 수 있어 음악의 표현영역을 넓혀주고 어린이들이 음악시간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합주를 통한 오케스트라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연주한 곡을 녹음 및 재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의 연주를 선생의 연주와 비교, 확인할 수 있고 교사의 입장에서는 반주곡을 한번 연주후 녹음해 놓으면 가창 지도를 할 때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등 음악학습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다.

또 ▲메트로놈 기능이 내장돼 있어 박자 교육을 쉽게 할 수 있

고 ▲조옮김, 자동조율 등 음악교육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이 있으며, 특히 ▲컴퓨터와 연결하면 작곡, 편곡, 연주연습 등 편리하게 활용할 수도 있는 첨단 악기이다.

무인 카드 복사기 첫선

대우통신



대우통신(대표 류기범)은 사용자가 카드를 카드 체크기에 넣으면 기기가 작동됨과 동시에 사용대금은 복사 장수에 따라 카드에서 자동 결제되는 무인카드복사기 신제품을 출시하고 본격 판매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동사가 공급하는 무인카드복사기<사진>는 일반복사기에 카드체크기를 시스템으로 연결한 제품으로 기기 및 소모품에 대한 정기점검요원 외에 별도의 상주 관리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이같은 무인카드복사기는 그동

안 일부 대리점 차원에서 카드체크기를 자체적으로 수입, 일부 대학 등을 대상으로 소폭 공급돼 왔으나 대기업 차원에서 시스템을 연결시킨 제품을 출시해 조직적으로 영업에 나서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우통신은 지난달부터 서울대·연세대·상지대·전남대·조선대 등에 시범적으로 150여대의 무인카드복사기를 공급했으며 4월부터 본격 영업에 들어갔다.

근접센서용 코넥터

국산화

대신전자정밀

대신전자정밀(대표 김영기)은 국내 처음으로 근접센서용 커넥터를 개발, 최근 본격 생산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동축코넥터 전문업체인 대신전자정밀은 최근 CNC선반 등 공작기계를 중심으로 유지·보수가 간편한 코넥터형 근접센서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관련 코넥터의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지난해 10월부터 총 2천여만원을 투자, 센서용 코넥터를 개발했다.

이 회사는 전선 길이 2m·3m·5m 등 3종류의 제품을 이달부터 월 500개 규모로 생산을 시작하는데 이어 앞으로 시장상황에 따라 사출기계 등을 도입, 생산량을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다.

생화학 자동분석기

개발

메디슨

메디슨(대표 이민화)이 울들어 ECG(심전도계)에 이어 생화학 자동분석기시장에도 신규 진출한다.

메디슨은 혈액과 소변으로 간기능검사를 비롯 다양한 항목을 검사할 수 있는 생화학 자동분석기(모델명 MARS)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고 4월말께 시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제품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말까지 약 1년간 5억원을 들여 개발했는데 모든 기능을 자동화한 것과 2마이크로리터의 초미량 검체로도 진단항목을 분석할 수 있게 설계해 유아·노인·심신허약자 등 혈액채취가 어려운 사람의 경우 극소량의 혈액만 채취해도 모든 검사항목을 분석할 수 있는 것이 큰 특징이다.

가정용 CD플레이어

개발

비오

(주)비오(대표 이달수)가 비디오·오디오 CD기능 및 CD반주기능을 갖춘 가정용 CD플레이어(모델명BCH 202)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주)비오가 4월부터 판매할 CD플레이어는 음원모듈(모델명 BSM2800)을 내장해 128가지의 다양한 전자악기음과 고유의 국악음을 지원해 준다. 또 CD반주기능으로 제공하는 CD에는 각 곡마다 다른 동화상을 지원하고 기존 제품에 비해 음질이 훨씬 자연스러우며, 현장감있게 새로 편집한 3천여곡의 반주곡을 내장하고 있어 가정에서도 노래방이나 단란주점 등에서처럼 즐길 수 있다.

또한 레이저디스크(LD)나 일반 비디오 및 카메라 등 외부 영상기기와 연결 사용해 외부영상기와 지원이 가능하다.

PC서버시장 진출

삼보컴퓨터

삼보컴퓨터(대표 이정식)가 PC서버시장에 새로 진출했다.

삼보컴퓨터는 PC 및 주변기기 등 개인수요자 위주의 사업에서 탈피하고 최근 기업전산화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PC서버 시장을 공략키 위해 1~4개까지의 CPU를 연결, 사용할 수 있는 SMP(Symmetric Multi Processing) 기반의 PC서버 4개 모델을 발표했다.

동사의 이번 PC서버 시장진출은 올해 매출 1조원을 달성키 위한 사업다각화전략의 일환으로 단품 중심의 사업에서 PC서버를 활

용한 사업영역을 크게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삼보가 이번에 공급하는 PC서버는 4개의 펜티엄 CPU를 갖춘 「SMP서버 5400QP」와 「SMP서버 5400XX」, 2개의 CPU를 내장한 「SMP서버 5200DP」와 이의 보급형 모델인 「SMP서버 5200DP/POP」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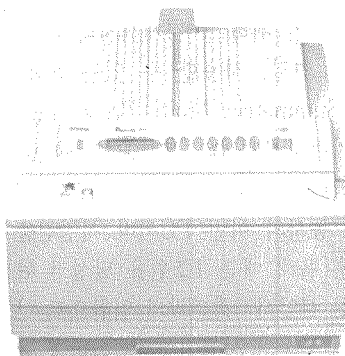
동사는 이들 제품이 현재 국내 PC서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외국산 제품에 비해 가격이 최하 15%에서 최대 50%까지 저렴한 것은 물론 주문생산이 가능해 국내 사용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사는 이번 신제품 발표에 이어 4월에 성능을 대폭 강화한 펜티엄프로 기반의 PC서버 3개 모델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16ppm의 초고속 LBP

페이지젯 P7 출시

삼보컴퓨터



삼보컴퓨터(대표 이정식)는 A4 모드에서 인쇄속도 16ppm을 기록하는 초고속 레이저프린터인 페이지젯 P7을 출시했다.

새로 출시한 레이저프린터의 가장 큰 특징은 같은 가격대의 경쟁사 제품에 비해 3배의 메모리(12MB)를 장착함으로써 실제 인쇄속도를 크게 향상시킨 점이다.

A3, B4, A4 용지를 인쇄할 수 있는 페이지젯 P7은 TrueRes기능을 탑재해 1200dpi급의 고품질 인쇄해상도를 낸다.

속도는 A4에서 16ppm, A3 용지는 9ppm를 기록한다. 12MB(초대 32MB 확장가능)의 대용량 메모리를 탑재한 P7은 4MB를 탑재한 제품에 비해 탁월한 성능을 자랑한다.

한글윈도 95와 3.1 그리고 아래아한글 2.1 이상의 프린터 드라이버를 지원하고 AES(Auto Emulating Switching), AIS(Auto Interface Sensing), APS(Auto Paper sensing)등의 부가기능을 채택했다.

페이지젯 P7은 명조, 고딕 샘플, 필기, 디나루, 궁서, 옛체 등 한글 서체 7종, 명조, 고딕의 한자서체 그리고 PCL5e호환의 45개 영문서체 등 다양한 인쇄서체를 지원한다.

또한 센트로닉스 패러렐 포트와 RS-232C 시리얼 포트를 동시지원한다. 에뮬레이션 방식으로는 KSSM+, KS, PCL5e, QnixM

HPGL2, HexDump 등 다양한 모드를 채택해 이기종과의 호환성을 극대화했다.

초순간 컬러 브라운관

세계 첫 개발

삼성전관

삼성전관(대표 손 욱)은 전원 공급과 동시에 화면이 나오는 「초순간(Quick Start) 컬러 브라운관」을 세계 최초로 개발, 오는 6월부터 양산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삼성전관이 20억원을 들여 독자개발에 성공한 초순간 브라운관은 히터와 음극이 일체형으로된 직접가열 방식(Directly Heat-ed Cathode)을 채택, 전원 공급과 동시에 화상을 표시하고 소비전력도 2.5W에 불과해 열효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기존의 분리형 간접가열 방식의 일반 브라운관은 4W의 전력을 소모하고 전원을 켜면 히터에서 발생하는 열로 음극을 가열한 후 열전자를 방출, 8~10초가 지난 뒤 화상을 구현한다.

초순간방식 브라운관은 캠코더 뷰파인더나 도어폰용 등 일부 소형 흑백브라운관에서 순간화상을 재현하는 데 응용돼 왔으며, 대형 컬러브라운관에서 실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가D램 제조장비 국산화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기가D램용 반도체 제조장비인 乾式蝕刻장치(Dry Etcher)를 국내 최초로 국산화, 연간 1,400억원의 수입 대체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다.

동사는 이 기술을 국내 반도체 제조업체에 무상으로 이전, 양산체제를 갖춘 뒤 수출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가 30억원의 개발비를 들여 국산화한 건식 식각장치는 웨이퍼 표면에 미세한 구멍을 뚫는 에칭공정용 핵심장비다.

건식 식각장치는 AMT LRC등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업체들만 개발, 시판하고 있는 제품으로 그간 전량 수입에 의존해 왔다.

건식 식각장치의 대당 가격은 200만달러에 달한다고 삼성은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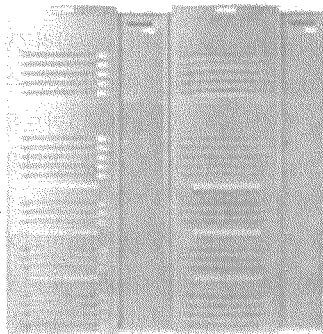
특히 이번 에칭장비는 고밀도 플라즈마 방식을 이용, 미세 가공할 때 주는 충격과 먼지 등의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삼성은 설명했다. 따라서 256메가 D램이나 기가 D램 등 차세대 반도체에도 적용할 수 있는 첨단제품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은 이번 기술개발로 반도체 고집적화에 따른 미세가공 기술과 관련된 장비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고 밝혔다. 삼성은 또 이 기술을 국내 장비업체에 이전, 국내 반도체 업체에 공급하는 것은 물론 외국 반도체 업체에 수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주전산기Ⅲ 첫 공급

삼성전자



삼성전자(대표 김광호)가 국내 처음으로 상용화한 국산 주전산기Ⅲ(모델명 SSM 8000)를 지방행정기관에 공급, 국산주전산기Ⅲ시대가 본격 개막했다.

삼성전자는 국내 중대형 컴퓨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전략 아래 국책사업으로 개발된 국산 주전산기Ⅲ를 업계 처음으로 충남 보령시청에 공급하는 출하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에 충남 보령시청에 공급된 국산 주전산기Ⅲ는 세무업무를 비롯해 예산회계·전자우편·화상 인사관리 등 행정업무 전반에 활용될 계획이다.

삼성전자가 보령시청에 공급한 국산 주전산기Ⅲ는 90MHz급 인텔 P54C 프로세서 2개와 1MB의 캐시 및 512MB의 메모리를 갖고 있으며 2.14GB의 하드디스크를 기본으로 최대 8GB급까지 저장능력을 확장할 수 있는데다 각종 미디어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등 확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멕시코 전자단지 준공

삼성전자

삼성이 유럽에 이어 미주지역에 전자 복합단지를 준공, 지구촌의 가장 큰 2개시장을 겨냥한 현지 생산에 돌입했다. 삼성은 멕시코 티후아나 앰플로리도 산업공단지에서 새디오 멕시코대통령, 블랑코 상공부장관 등 멕시코 경제계 인사와 김광호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자사 임직원과 현지진출 협력업체 대표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복합단지 준공식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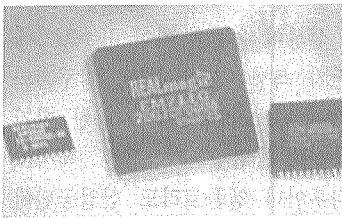
총 2억달러(한화 2,600억원) 이상을 들여 이번에 준공한 18만 8,000평 부지의 멕시코 전자복합단지에는 삼성전자의 컬러TV공장, 삼성전관의 브라운관 공장 삼성전기의 튜너 및 브라운관용 트랜스(FBT)공장 등 삼성의 전자 소그룹이 입주, 이번 준공과 함께 동시 가동에 들어가 멕시코 현지

에서 컬러TV 생산의 수직계열화를 완성하게 됐다.

삼성은 멕시코 복합단지에서 1단계로 컬러TV·브라운관·튜너·FBT·편형코일(DY)의 생산을 시작하는 데 이어 올해중 모니터를 추가하고 내년에는 전자레인지까지 양산할 계획이다.

멀티미디어용 칩세트 시장 진출

아남반도체기술



아남반도체(대표 김 무)가 멀티미디어용 반도체 시장에 본격 가세했다.

이 회사는 최근 미국의 MPEG 칩 전문업체인 시그마 디자인사와 공급계약을 맺고 내달부터 PC상에 구현가능한 각종 멀티미디어용 칩세트를 시스템 업체와 애드온보드 업체에 본격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남이 이번에 공급할 멀티미디어 칩세트는 16×16 크기의 화면에서 풀화면까지 화질 저하없이 축소·확대가 가능한 스칼라 칩「EM7110」과 리얼 오버레이 칩

「EM9000」, 그리고 멀티클럭 제너레이터「EM9221」등 3종류이다.

이 제품은 PC상에서 그래픽기능 구현시 화질이 뛰어나고 많은 메모리 용량을 필요로 하지 않는 아키텍처를 갖추고 있는 게 특징이다.

아남은 7월부터 비디오 디코더·스칼라·오버레이·DSP가 내장된 오디오기능·플러그 앤드 플레이(Pnp)기능이 통합된 단일 칩「M1」과 노트북PC 관련ZV(Zoom Video)포트를 지원할 수 있는(MPEG PC MICA)카드를 출시, 멀티미디어PC시장 공략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남은 이번 PC용 멀티미디어 시장 진입에 이어 가정용 비디오 게임기 등 엔터테인먼트 분야는 물론 VOD·비디오서버 등 교육관련 분야로 MPEG칩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 82년 실리콘밸리에 설립된 시그마 디자인사는 지난 93년「리얼매직」시리즈 제품을 발표, 세계 PC용 MPEG칩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PID온도계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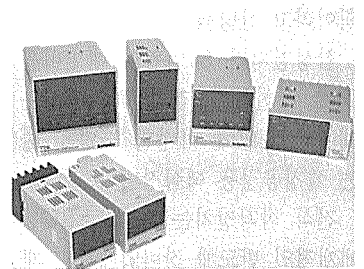
오토닉스

(주)오토닉스(대표 박환기)가 개발한 PID온도계는 기존 PID온도계의 기본기능을 내장한 것은

물론 특수한 기능설계로 소비자로부터 하여금 선택의 폭을 넓게 하려고 편리성과 안정도 및 최적제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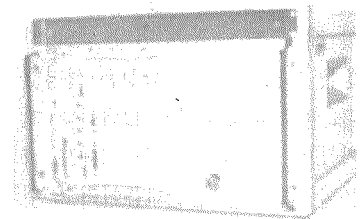
동 제품은 각종 온도제어시 사용되는 온도센서 및 변환센서 등 15가지의 입력을 별도의 내부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멀티 입력 기능이 내장되어 있다.

또한 다용도 보조출력 기능, 다양한 사이즈별 외장설계, 2중 PID 기능 등이 장착되어 있다.



멀티형 MPEG II 인코더 개발

LG전자



LG전자(대표 구자홍)가 고선명 TV(HDTV)용 MPEG2까지 신호처리 및 생성이 가능한「멀티형

MPEG2 인코더」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94년 2월부터 2년여동안 20여명의 연구원과 1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들여 개발한 이 멀티형 MPEG2 인코더는 기존 필립스나 소니가 개발한 디지털 비디오디스크(DVD) 및 디지털 직접위성방송 전용 MPEG2 인코더 등에 비해 그 응용범위가 훨씬 넓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즉 비디오 CD로 대표되는 MPEG1 신호부터 DVD, 직접위성방송은 물론 가장 높은 수준의 신호처리 및 생성을 요구하는 HDTV용 MPEG까지 처리할 수 있는 멀티형 구조로 설계됐다.

따라서 LG전자의 이번 멀티형 MPEG2 인코더 개발은 올 하반기에 디지털 위성방송이 실시되고 DVD가 상용화되는 것과 맞물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 저장후 원하는 시간에 볼 수 있는 非실시간형(Not Real Time)으로 제작돼 음성과 화상이 발생 동시에 전달(실시간형)되지는 않으나 멀티미디어 SW 타이틀제작에 용이함은 물론 신알고리즘을 적용, HW의 상당부분을 SW로 대체함으로써 가격을 낮출 수 있으며 간단한 조작만으로 입력신호 조절이 가능하다.

무선망 셀 설계

시뮬레이터 개발

LG정보통신

LG정보통신(대표 정장호)은 필드에 무선망을 구축하기 전에 워크스테이션상에서 무선망의 전반적인 상황을 미리 시험해 볼 수 있는 무선망 셀설계 시뮬레이터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셀설계 시뮬레이터는 무선망 구축시각 셀들이 커버할 수 있는 공간을 비롯해 인접셀간의 간섭·무선기지국의 위치선정, 전파의 세기, 무선안테나와 전계강도의 예측 등 무선망 구축시 필요한 사항들을 미리 시험할 수 있다.

또한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해 시·군·구 경계선, 도로, 하천, 산, 강, 철도 등 무선전파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지형정보를 삽입할 수 있어 무선망 설치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망을 구축할 수 있다.

특히 이 시뮬레이터는 소스 코드에서부터 GIS데이터 획득기술 등 모든 기술이 독자적으로 개발돼 기존의 외산장비보다 사용자 환경에 따라 SW의 변경이 용이, 응용범위가 넓은 게 특징이다.

18M 램버스 D램

첫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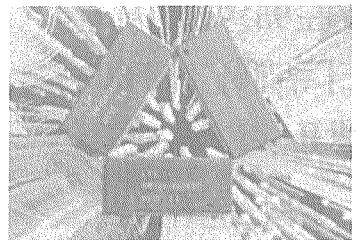
LG반도체

LG반도체(대표 문정환)가 차세대 고속 메모리 제품으로 부상

하고 있는 초고속의 18M 램버스는 D램을 국내 처음으로 개발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이번에 개발한 램버스 D램은 기존 고속 D램중 가장 빠른 제품으로 평가받는 싱크로너스 D램보다도 5배 이상 빠른 초당 500M~600 MB의 초고속으로 각종 데이터를 저장·전송할 수 있어 그간 시스템 성능향상에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중앙처리장치(CPU)와 메모리의 처리속도 차이로 인한 병목현상을 제거, 실시한 동화상 및 2, 3차원 그래픽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최근 133MHz 이상의 고속 CPU개발과 시스템의 멀티미디어 화에 따라 그래픽·동화상의 실시간 처리를 위한 방대한 데이터의 고속처리가 요구돼 왔으나 기존 D램은 속도가 제한돼 사실상 시스템의 원활한 지원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18M 램버스D램은 한꺼번에 많은 양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2뱅크(Bank)구조를 갖고 있으며, 3.3V 저전력과 초박형의 SHP(Surface Horizontal Package), 그리고 32핀 구조로 보드 구성을 간소화시켜 기존 D램의 3분의 1 크기로 PCB제작이 가능해 원가



절감은 물론 시스템의 현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다.

독일에 연구소 설립

LG반도체

LG반도체(대표 문정환)가 독일 뒤셀도르프에 「LG반도체 독일 뒤셀도르프연구소」를 설립했다.

LG반도체는 독일연구소(소장 전영준 이사)를 유럽지역 R&D 본부로 삼아 유럽지역의 R&D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현지 R&D자원을 흡수하는 데 활용할 방침이다.

이 독일연구소는 독일의 멀티미디어 및 통신분야의 기초기반기술을 습득, 세계수준의 비메모리반도체 제품생산 강화를 위한 「스타(Star)전략」제품 개발에 주력한다. 특히 현지업체와 공동으로 유럽 이동통신규격인 GSM 제품과 특정용도표준반도체(ASSP) 개발과 특정용도주문형반도체(ASCP) 설계를 현지에서 추진해 유럽지역 주문형반도체(ASIC) 사업의 전략적 전초기지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윈도95용 레이저 프린터 큐레이저 SF600 발표

큐닉스컴퓨터

국내 최고의 레이저프린터 업체인 큐닉스컴퓨터(대표 이범천)는 최근 윈도95에 가장 최적화된 신제품 큐레이저SF600을 개발 완료하여 시판에 들어갔다.

큐닉스 컴퓨터는 그동안 쌓아올린 프린터 개발 기술을 기반으로 최근 새로운 OS로 각광받고 있는 윈도95 환경에 가장 적합한 큐레이저SF600이 새롭게 선을 보인 다.

이 큐레이저SF600은 큐닉스컴퓨터의 레이저프린팅 기술의 결정체로 기존의 LBP에 비해 PC에서 프린터까지 보내는 데이터 전송속도를 5배나 끌어올렸다. 또한 국내 최초로 윈도95용 ECP(Extended Capability Port)포트를 장착하여 프린터의 현재 상태를 PC화면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Plug & Play를 지원하기 때문에 프린터에 연결된 PC를 켜면 윈도95를 띄우면 프린터의 연결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발표된 큐레이저 SF600은 앞으로 윈도95가 새로운 OS로 자리잡아감에 따라 많은 사용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이 제품의 주요 특징과 장점은 △빠른 데이터 전송 △프린터와 PC가 통신 가능 △간편한 프린터 연결 △짧은 최초 대기시간과 절전 기능 △300~1,200dpi에 이르는 해상도 △더욱 다양한 예물레이션 모드 △카세트 하나면 어떤 용지도 척척 양면인쇄 가능 △

자체 확대, 축소 기능 △인공지능 프린터 - AES, AIS, 토너절약형 모드 등이 있다.

MR헤드 공장 준공

태일정밀

태일정밀(대표 정강환)은 지난 3월 29일 강원도 춘천 퇴계농공단지내 제2공장에서 고용량 하드디스크(HDD)의 핵심부품인 자기저항(MR)헤드 전용공장 준공식을 갖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태일정밀이 지난해 7월부터 총 150억원의 시설자금을 투입, 8개월여만에 완공한 이 공장은 초청정클린룸과 장동화를 완비한 건평 1,500명 규모의 첨단공장으로 이달부터 월 75만개의 MR헤드를 가공, 전량 일본 후지쯔에 공급할 예정이다.

이날 준공식에는 추준석 통상산업부 차관보·배계섭 춘천시장·이민섭 의원 등 춘천지역 국회의원·전자산업진흥회 이상원 부회장 등 주요 외부인사와 태일정밀 및 계열사 임직원, 그리고 협력사인 일본 후지쯔 관계자 등 200여명의 관계자가 대거 참석했다.

한편 태일정밀은 이날 준공식에서 후지쯔의 사나카 본부장·FKL동화 오자키 사장 계열 시공업체인 신방건설 김석호 사장 등 6명에게 공장완료 공로에 대한 감사패를 수여했다.

PA스피커 개발

태진음향

태진음향(대표 윤재환)은 노래방 및 단란주점용으로 적합한 PA스피커시스템 3종을 개발해 3월부터 시판한다고 밝혔다.

이 스피커시스템은 콤팩트형인 「TS 85」, 돔타입의 트위터를 채용한 「TS100」와 혼타입의 트위터를 채용한 「TS120B」 등 3종이며 최대출력은 각각 300·400·500 W씩이다.

이 제품은 모두 3개의 스피커 유닛을 사용한 3웨이제품으로 천장이나 벽에 설치가 쉽다.

이 가운데 특히 TS 85는 금형비만 1억원을 들여 개발한 제품으로 외관 모서리에 진동을 방지할 수 있는 합성 플라스틱 연결캡을 사용, 저음에서 고음까지 맑고 깨끗한 소리를 재생할 수 있다.

스마트 카드 단말기

개발

한국컴퓨터

한국컴퓨터(대표 박명식)는 국내의 표준규격을 수용한 금융업무용 스마트카드 단말기(제품명 스마트 키클)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한국컴퓨터가 지난 1년간 7억원을 투입해 개발한 이 제품은 도

스·윈도·유닉스 등 다양한 시스템의 응용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각종 스마트카드를 사용할 수 있어 개방성과 확장성이 뛰어나다.

또 별도의 지원없이 단말기 이상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내부에 자체진단기능을 부가했으며 터미널 해킹 보호기능을 가지고 있다.

선택사용으로 마그네틱 카드를 병행 사용할 수 있는 이 제품은 금융분야외에도 의료·POS시스템·판매관리·출입관리·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

칩 네트워크 국산화

한룩전자

저항기전문업체인 한룩전자(대표 정세능)가 수입에 의존해온 칩네트워크를 국산화, 대량양산에 나선다.

이 회사는 10억여원을 투입, 서울구로3공장에 검측기 레이핑기 레이저 트리밍기 등 칩네트워크의 설비를 대폭 확충, 이달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룩전자는 월1천만개의 칩네트워크를 양산할수있는 체제를 갖추게 된다. 칩네트워크는 한개의 세라믹기판안에 여러개의 칩저항기를 이식시킨 제품으로 주로 컴퓨터 등에 사용된다.

컴퓨터의 확대보급으로 점차 늘고있는 칩네트워크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 대량생산에 나서게 됐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한룩전자는 이와함께 지난해 착수한 중국천진공장의 설비작업을 마무리, 이달부터 월2억7,500만개의 카본저항기를 생산한다.

한룩전자는 또 PTC(정온도계수서미스터) NTC(부온도계수서미스터)센서소자를 개발, 올해안에 생산할 계획이다.

웨이퍼 자동분류·정렬

장비 국산화

현대전자산업

현대전자(대표 정몽헌)는 기존 장비보다 웨이퍼의 손상을 줄이면서 생산성을 30%이상 향상시킨 웨이퍼 자동분류 및 정렬장비「소터(Sorter)」의 국산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현대전자가 총 1억 5,000만원을 들여 개발한 이 제품은 고집적 메모리반도체의 수율 향상에 필수적인 최첨단 반도체장비로 핵심부품 및 운용소프트웨어를 자체 개발, 장비 정밀도를 향상시켰고 한글메뉴 방식을 채택해 작업의 편리성을 높였다.

또 카세트당 처리능력을 30% 이상 향상시켰으며 자동화 라인에서 각 공정간에 카세트를 이동시키는 무인방송차와 통신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 수작업으로 해왔던 웨이퍼의 이동과 분류작업의 경우 16MD램급 이상의 반도체 제조공정에서부터의 웨이퍼 손상을 방지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의같은 공정을 자동 처리할 수 있는 소터장비를 수입 사용해 왔는데, 현대전자는 이번 소터장비 개발로 연간 2천만달러 이상의 수입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카메라 독자모델 개발

현대전자

현대전자(대표 정몽헌)가 자체 기술로 3배줌 카메라(모델명 하이퍼 줌120)를 개발해 4월부터 양산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94년 8월부터 총 40억원의 연구비를 들여 기초설계에서부터 양산에 이르기까지 순수 자체 기술로 개발한 이 카메라는 렌즈의 왜곡현상을 보정하기 위해 구면렌즈 2개를 사용하는 기존방식과 달리 1개의 비구면렌즈를 채용해 기존제품보다 렌즈 무게를 줄이고 선명한 사진을 얻을 수 있다.

또 제품 윗부분에 액정표시장치

(LCD)화면에 부착, 필름 사용매수·줌거리·노출정도 등 각종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현대전자는 이 모델을 수출주력 모델로 선정하고 연간 30만대를 생산, 카메라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주·유럽·일본 등지에 약 25만대를 수출할 예정이다.

한편 현대전자는 이 카메라를 지난달 라스베이거스에서 폐막된 PMA쇼에 출품해 해외바이어에게서 2천만달러 이상의 주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회원사 변경사항 안내

- ▶ 한국산미(주) 상호 변경
 - 변경전 : 진해삼미(주)
 - 변경후 : 한국산미(주)
 - Tel : 053) 44-5101

- ▶ 지원산업(주)대표이사
 - 변경전 : 이 현 영
 - 변경후 : 정 인 현
 - Tel : 02) 585-0821~8